민족사적 트라우마와 대항서사

- 임영춘 소설을 중심으로 -

장미영*

〈차 례〉

1. 머리말
2. 새만금의 탄생
3. 새만금 민족지
 1) 기억 서사
 2) 고발 서사
 3)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4. 맺음말

【국문초록】

기억의 기록은 누군가가 겪은 사건의 경험을 동시대에 살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가져야만 한다는 신념하에 이루어지는 당위적 의지의 실천이다. 그것은 당대 사회가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 문제에 대해 의식을 가진 자가 소리 없이 깊숙하게 개입하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소설가 임영춘은 『갯들』(1981년)로부터 시작하여 『들판』(1988년), 『대지의 유언』(1994년)에 이르기까지 개칠에 개칠을 거듭하면

*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서 우리나라의 곡창지대가 일제에 탈취당하고 개펄마저 왜인들의 손에 유린당한 민족의 상흔을 줄기차게 그려냈다. 20권 분량의 대하소설 집필을 꿈꾸었던 작가는 고향인 김제 광활면에서 살았던 유년시절의 기억을 토대로 옛 식민지시대 일제의 동진강 하류 간척사업과 간척지 이민촌을 추적했다.

작가의 수년에 걸친 자료 수집으로 철저한 고증이 더해지면서 '징게맹게 너른들'로 불렸던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는 우리나라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곡창지대이자 동시에 민족적 고난의 공간 또는 민족사적 트라우마의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임영춘이 기록한 만경벌과 동진 농장 일대의 간척지에 서린 한국인 농노들의 원한과 절규는 제국주의적 가치 속에 은폐되어버린 인간의 비참한 삶에 대한 세계사적 증언이기도 하다.

세월이 흘러 지난 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객관적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지금 우리는 임영춘이 그려낸 바, 일본 제국주의시대의 희생자가 토로하는 고통스런 절규, 당대 우리 민족의 참담한 삶의 현장을 통해 조상에 대한 후손으로서의 역할 내지 국가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의무감 등을 깊이 사유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제어: 문학지리학, 인문학적 가치, 민족사적 트라우마, 기억의 기록, 민족적 상흔, 제국주의적 가치, 역사적 증언, 수탈사, 국민적 의무감, 심상지리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국토의 장'[1]으로 언급되고 있는 '새만

1) daum 백과(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

금(새萬金, ariul)'을 문학지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관련 작품을 발굴하고 이를 민족사적 관점에 의한 새로운 공간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새만금을 작품의 소재 및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임영춘의 장편소설 세 편에 주목하고자 한다. 임영춘의 소설을 통해 본고는 새만금에 대한 작가의 심상이 작품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피는 동시에 새만금에 잠겨 있는 민족사적 트라우마를 들춰내는 한편 이를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또는 이기적인 일본 내셔널리즘에 대한 대항서사로 읽어내고자 한다. 이로써 본고는 새만금 공간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통해 새만금의 인문학적 가치가 조명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새만금의 경제적 가치에 더 큰 방점을 찍는 현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여론의 흐름 대신 인문학적 관점에서 다시 보는 새만금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구하고자하는 노력의 일단이기도 하다.

'새만금'은 좁은 의미로 볼 때 '새만금 방조제'를 일컫는 용어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새만금'은 '새만금지구'로 되어 있는 군산, 김제, 부안 지역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용어이다. '새만금'이라는 명칭은 김제·만경 방조제를 더 크게, 더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에서 예부터 김제·만경(金堤·萬頃)평야를 '금만(金萬)평야'로 일컬어왔던 '금만(金萬)'이라는 말을 '만금(萬金)'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로[2], 이 명칭에는 오래 전부터 옥토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공간을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 사회에서 '만금(萬金)'은 '아주 많은 돈'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보통 '가서만금(家書萬金)'이라 하면 '가족으로부터 오는 편지는 만금의 가치에 상당할 정도로 기쁘고 반갑고 소중하다는 뜻이다. 더 흔하게는 '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물

2) daum백과, 같은 사이트.

건이다'라거나 '만금을 준다 해도 그럴 수는 없다', '만금 같은 귀중하신 몸으로 그런 일을 하시다니요'와 같은 표현에서 '만금'에 대한 우리의 정서가 드러난다. '새만금'이라 했을 때 보통 사람이 느끼는 체감적 의미는 '새로운 만금의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이다. '새만금'의 '새'는 '백'만금, '천'만금, '억'만금, '수억'만금으로 능히 '만금'을 희롱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부(富)에 대한 욕망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

이러한 '새만금'의 어원을 고려할 때, 김만경(金萬頃)평야의 일부가 되는 호남의 동진강 하류 간척지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임영춘의 소설은 가히 새만금 문학이라 일컬을만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우선, 일제가 개발한 동진강 하류의 간척지도 현 '새만금지구'에 속하는 곳이라는 점, 게다가 이 간척지 또한 현 새만금 방조제처럼 '김제·만경 방조제를 더 크게 확장하여 김만경(金萬頃)평야와 같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아울러 현재의 새만금이 경제적 가치로 논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옛 동진강 하류 간척사업 또한 부(富)를 욕망하는 당시 일본자본주의를 실현하는 실천 공간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새만금 방조제를 포함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에 걸친 간척지 들판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으로는 임영춘의 『갯들』, 『들판』, 『대지의 유언』을 비롯하여, 채만식의 『탁류』, 조정래의 『아리랑』, 조헌용의 『파도는 잠들지 않는다』 등을 비롯하여 기린문학회 동인들이 '새만금 현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시와 수필을 묶은 『기린문학』, 제8집[3]을 들 수 있다. 이 중 본고에서는 임영춘의 소설에 주목하고자 한다. 임영춘 소설은 문학적 상상력에 비중을 두고 있는 다른 작품과 달리, 상상력을 걷어낸 사관처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충실한 기록과 더불어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쓴 문학

3) 기린문학회, "새만금 현장을 찾아서", 『기린문학』, 제8집, 2005.

적 차원의 이야기'를 접합시켰다는 점에서 독특한 문학지리적 심상을 확보하고 있다.

그간 새만금을 문학지리학적 측면에서 연구하려는 시도는 2009년에 나온 『새만금 스토리텔링』[4]이 유일하다. 『새만금 스토리텔링』은 문학연구학자, 방송구성작가, 공무원이 합심하여 새만금 공간과 관련이 있는 설화, 시, 소설을 소개하는데 목적을 둔 연구서이다. 이 연구서는 새만금을 이천년 가까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역사적 상징체로 간주하고 새만금에 얽힌 이야기를 문화적 보고(寶庫)로 가치 부여하는 등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는 이 연구서에서 제시한 역사적 상징체로서의 새만금에 주목하고 새만금의 미래적 가치를 임영춘의 소설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

본고가 중점적으로 논의하려는 임영춘 소설에 대한 선행연구는 2008년에 나온 변화영의 "기억의 형상화와 지방사: 임영춘의 『갯들』에 나타난 김만경평야"[5]가 유일하다. 변화영은 12장으로 구성된 소설 『갯들』의 줄거리를 소개하되 김만경평야, 상록학원, 동진농장에 특히 주목하면서 소설의 주인공 '나'의 개인적 기억이 '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특정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 『갯들』을 '민족지 텍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고는 변화영이 주장한 '민족지 텍스트'로서의 『갯들』 논의를 계승하면서 『갯들』 외 임영춘의 다른 소설로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

4) 장미영 외, 『새만금 스토리텔링』, 글누림, 2009.

5) 변화영, "기억의 형상화와 지방사: 임영춘의 『갯들』에 나타난 김만경평야",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3집, 2008, pp.395-420.

2. 새만금의 탄생

'새만금'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했던 제5공화국 시절인 1987년 11월 2일이다. 당시 정인용 부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농림수산부를 책임지고 있었던 황인성 장관은 그 때까지 서해안 간척사업이라 불리던 것을 '새만금간척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계기로 이후 '새만금'은 공식 명칭이 되었다.

새만금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이곳 주민들에게 김제·만경 땅은 '징게 맹갱 외애밋들'로 불리운다. '징게'는 김제, '맹갱'은 만경, '외애밋들'은 '이 배미 저 배미 할 것 없이 모두 한 배미로 툭 트인 논'이라는 뜻이다. '김제·만경 너른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일직선으로 맞닿아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일망무제(一望無際)의 곡창지대였다고 하니, '그 끝이 하늘에 맞닿아 넓디나 넓은 들녘'으로 '어느 누구나 기를 쓰고 걸어도 언제나 제자리에서 헛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6] 할만도 했을 정도로 넓은 평야이다.

오늘날의 우리는 이곳이 태생적인 곡창지대라거나 비옥한 땅이 아닌, 바다였고 황무지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옥토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수세기에 걸친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의 40분의 1을 키워냈던 '김제·만경 너른들'은 황금물결로 일렁이는 벼이삭만큼이나 많은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에서 한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그저 들판만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이 넉넉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농경용수를 대기 위한 호수 축조 작업에 동원된 사람들도 있었고 바다를 메워 육

6) 조정래, 『아리랑』, 1권, 해냄출판사, 2008, p.11.

지와 연결시켜 광활한 옥토를 만드느라 삭신이 녹아 내렸던 사람들도 있었다. 330년 백제 비류왕 27년에 호수를 만들기 위해 500명의 인부가 동원되었다는 까마득한 삼한시대의 역사 이야기로부터 일제 식민시기에 시행된 수리사업에 얽힌 이야기, 일본 천황에게 좋은 쌀을 바치느라 허리가 휘도록 농사를 짓고도 정작 황금 이삭 근처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던 농부들의 한 맺힌 이야기, 더 나아가 강제 징용, 소작 쟁의, 독립 운동 이야기 등 우리 조상의 지난했던 삶의 흔적은, 새만금이 21세기를 위한 미래 성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드높은 경제적 목청에 자꾸만 희미해져 가고 있다.

과거의 볼품없는 이야기도 후손들에게는 소중하게 남아야 한다. 과거는 과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는 현재적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이자 뿌리이다.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이 끊임없이 예기치 못할 파장을 야기하는 오늘날, 우리는 과거를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그 과거가 초라하든 화려하든, 과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로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적혀 있는 글귀처럼, 아픈 과거를 통해 교훈과 지혜를 얻지 못하는 민족은 더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기 쉽다.

새만금은 간척사업만으로도 강산이 두 번 바뀔만한 긴 세월의 수로를 지나왔다. 게다가 30년 가까운 시간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희망과 갈등이 엇갈렸던 새만금은 굴곡의 역사만큼이나 다면적으로 풍성한 이야기가 쌓이게 되었다. 이제 국책사업으로 입지를 굳힌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의 땅으로 또 다시 새롭게 태어나려 하고 있다.

새만금은 새만금 전사(前史)라 할 수 있는 역사를 포함하여, 삼

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천년 가까운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바, 새만금 토론회나 공청회 등 공론장에서 의견 일치를 본대로 간척지라는 지리적·공간적 의미를 넘어 인조(人造) 공간으로서의 역사적 상징체이면서 문화적 보고이기도 하다. 새만금은 그에 얽힌 이야기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미래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3. 새만금 민족지

1) 기억 서사: 『갯들』

기억의 기록은 누군가가 겪은 사건의 경험을 동시대에 살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가져야만 한다는 신념하에 이루어지는 당위적 의지의 실천이다. 그것은 당대 사회가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 문제에 대해 의식을 가진 자가 소리 없이 깊숙하게 개입하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소설가 임영춘은 『갯들』의 맨 앞 장 "작가의 말"에서 다음과 같이 본인의 집필 의지를 밝힘으로써 이 책이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려는 글쓰기라기보다 기억의 기록으로서의 글쓰기임을 고백하고 있다.

> 이 고장에서 태어난 나는 어른들이 시달리다 못해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봤고, 나 역시 개구리와 뱀이 썩은 도랑물을 먹고 굶주림 속에서 죽지 않고 용케 살아났다. …(중략)… 이 책은 다만 내 가정이나 이 지방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다. 생각하면 역사적인 이 상황을 되살리기가 쑥스럽기도 했지만 한편 인간 승리를 한 우리 겨레의 참된 얼을 그리지 않을 수 없어 나는 밤마다 붓을 들고 흥분에 떨었을 뿐이다.[7]

---

7) 임영춘, 『갯들』, 현암사, 1981, p.7.

위와 같은 작가의 신념은 새만금의 한 자락, 김제 만경의 과거를 되짚어 개인의 기억을 민족의 역사로 형상화한 민족지를 일구어 냈다. 일제의 의해 자행된 폭력적 사건의 기록물인 『갯들』은 소설가의 집념어린 의지가 담김으로써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역사에 대한 망각의 정치학을 획책하고 있는 현재, 망각의 폭력에 대응하는 대항서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갯들』은 주인공 '나'가 1920년대 후반부터 해방되던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부모가 간척지로 이주해서 살았던 시절의 자서전적 이야기이다. 1932년에 태어난 임영춘은 '동진농장'으로 불리던 간척지 이민촌, 즉 김제군 광활면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으며, 결혼을 해서도 광활면을 떠나지 않았고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던 때도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살았지만 아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에서 생활했기에 여전히 광활면 주민으로 머물고 있었으며 1986년 어머니 서귀인이 별세하기까지 광활면에 산 광활면 토박이이다.[8] 그 덕분에 임영춘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간척지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기억을 되살려내고 여러 해 동안 수집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김제의 들판에서 한 세상을 살았던 농부들의 삶을 소설로 형상화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9]

소설의 배경은 호남의 동진강 하류 간척지인 김제 광활면으로, 이곳은 일제가 동진강 하류의 갯벌을 개간하여 이민을 받아 조성된 지역이다. 광활면은 일제가 간척을 통해 조선의 지형을 바꾼 소위 식민지 근대화의 산물이었다. 작가 임영춘은 동진농장으로 불리던 간척지 이민촌, 즉 광활면에서 출생하여 1986년 어머니가 별세하기까지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김제 광활 사람이다.[10] 일제

8) 변화영, "기억의 형상화와 지방사: 임영춘의 『갯들』에 나타난 김만경평야",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3집, 2008, 396쪽.
9) 임영춘, "작자의 말", 『갯들』, 『들판』, 상, 하, 『대지의 유언』, 상, 중, 하.

하에 한국농민이 겪은 수모와 울분을 어린 시절에 몸소 경험했던 저자는 '민초의 혹독한 역경과 불굴의 의지를 그려내어 민족수난사의 한 몫을 담당하고자 했다.'고 전한다.

이 소설의 무대에서 성장한 작자는 본인의 체험과 4년여에 걸친 자료 수집을 통해 갯바람 불어오는 간척 농지 만경벌에서 농노로 입주한 700세대 집단 촌민의 혹사당하는 삶을 극명하게 그려 낼 수 있었다.

> 종해는 요새 이상한 소문이 들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제방이 막아질 때의 이애기였다. 마지막 작업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것이다. 빈 지게만 남아 있었으니 필시 그 주인이 있어야 할 것이었다. 이야기는 구구했다. 한창 사람의 떼로 쩌눌렸을 때 꾀 약은 사람은 바쁘고 정신 못 차릴 새에 빈 지게만 짊어지고 왔다갔다 해도 십장들이 흙짐을 쳐다보지도 않고 만보를 주어 돈을 많이 번 인부도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나약한 사람은 깔려 죽었을 것이란다. 이 말을 듣고 종해는 자리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 나온다. 그리고 새로 갯벌에 가로 놓인 둑을 쳐다본다. 몸이 약한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때로는 울적하면 제방에 가서 거닐어 본다. 아버지가 일했을 자리를 상상해 본다.[11]

『갯들』은 주인공 임종해 부부 이야기에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덧붙이는 식으로 구성되었다. 주인공 '임종해'는 이 소설을 쓴 작가 임영춘의 실제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다. 작가는 아버지 이름을 허구물의 등장인물로 삼아 부모나 이웃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와 허구물의 이야기를 버무리고 허구물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

---

10) 변화영, 앞의 논문, 396쪽.

11) 임영춘, 『갯들』, 현암사, 1981, p.86.

서 이 작품은 임종해 중심의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뒤얽혀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작품의 소설적 재미를 위해 다분히 허구 서사로 이루어져 있으나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작품 바깥 세계의 구체적인 날짜, 지명, 사람 이름 등이 드러난다.

> 1928년 12월 8일에는 운암 저수지 물둑 도교식이 거행되는 날이었다. 거기에 동진수리조합과 동진농장 간척지 관계자들은 모두 참석했다. …(중략)… 이 물둑의 높이가 33미터에 이른다.[12]

> 이곳 이민 사업은 1929년부터 35년까지 내부공사를 하여 농토가 조성되는 대로 이민 심사를 해서 합격된 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29년부터 1답구가 논 18렬간에 91호와 2답구 역시 18렬간 논에 85호가 맨 먼저 이민 들었다. 그리고 30년부터는 3답구 10렬간의 논에 81호와 5답구 13렬간 논에 80호가 들어섰다. 31년에는 7답구가 11렬간 논에 57호가 한꺼번에 이주해 왔다. 그리고 34년에 9답구가 12렬간 논에 62호가 집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35년에 4답구가 11렬 논에 82호와 6답구가 12렬에 68호, 8답구가 14렬에 70호가 들어선 것이다. 이래서 서해안 일단이 간척되어 더 넓어진 김만경 들이 탄생하게 되었다.[13]

당시 일제는 본국의 이주농민을 모집하기 위해 '신천지', '이상향', '모범적 농촌건설'을 기치로 조립식 건물, 학교, 목욕탕, 신사, 그리고 저렴한 대출상환조건 등 각종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렇게 모집한 농민들에게 일제는 농업교육뿐만 아니라 수기, 교련, 무도, 유도, 총검술 교육까지 의무화시켰다. 즉 농업이민정책은 인구와

12) 임영춘, 앞의 책, 1981, p.96.
13) 임영춘, 앞의 책, 1981, p.103.

쌀 문제를 넘어서 식민지 건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기지 조성의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

> 키도 크고 얼굴이 둥근 그는 살집이 좋았었다. 그런데 이제 뼈만 남았다.
> "소화가 안 돼서 죽겠어."
> 도무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자연 맥이 풀린다는 것이었다. 그는 하다못해 논바닥에 발딱 누웠다. 하늘이 파랗게 엉겨 있다. 멀리 고향이 눈앞에 온다. 고향에 가 죽고 싶었다. 더 버틸 힘이 없었다.
> "배고파서 생물고기를 꼬창 찍어 먹은 것이 체했던 거여."
> 그의 말이었다. 갤 때가 넘었는데 점점 악화되어 갔다.
> "날 것 먹으면 나쁘다는데."
> 부인이 걱정이었다.
> "배고픈데 어떻게 해."
> 금시 도랑에서 잡아와 펄떡펄떡 산 놈을 씹어댔었다. 그는 몸집이 커서 가죽과 뼈가 쿨렁쿨렁 비어 있는 것같은 인상이다. 살을 채우려니 한없이 먹어도 모자라 닥치는대로 똘물에서 건진 것을 먹어댄 것이다. 디스토마균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 "일 못 나오면 빨리 나가."
> 하루는 감독이 집에 쫓아와 큰소리였다. 눈이 퀭하니 들어간 채 방에 누워서 감독을 바라보던 그는 눈물을 뚝뚝 떨어치면서,
> "감독님, 올 가을만 봐 주시오."
> 애걸에 찬 눈동자였다.
> "공동일을 어떻게 빠진다는 거여."
> 그래도 끝내, 큰 몸집이 일터에 못 나오자 대신 다른 사람을 이민 받았다. 그는 떠날 기운도 없어 곧 맥이 떨어져 죽어 버렸다.[14]

어둡고 처절했던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비루먹은 나귀처럼 살아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전율할 생활상을 묘파한 이 작품은 한국판 『뿌리』에 비견될 만큼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갯벌을 간

14) 임영춘, 앞의 책, 1981, p.185.

척하는데 배고픈 이향민들을 투입하여 노예처럼 부렸던 일제의 잔학함과 함께, 수확물을 철저히 빼앗기면서도 '땅'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개간지를 떠나지 못했던 한국인들의 처절한 모습은 독자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

> "노예시장에서처럼 쓸만한 놈을 골라 와야 한단 말이야"
> 구레나룻이 무성하고 어깨가 벌어진 비서의 말이었다.
> "조선은 우리 식민지야.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좋아"
> 그는 미치광이처럼 떠들어댔다.
> "말채 같은 단단한 채찍을 만들어서 말 안 듣는 놈은 마구 후려치는 거야"
> 어깨를 으쓱거린다.
> "에헤, 재미있겠다. 코가 센 놈에게는 입에다 재갈을 먹이는 거야. 그러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지 않다."
> 사무원들도 그의 입을 쳐다보며 침을 꿀꺽 삼킨다.
> "여기 이것 좋구만."
> 난로에 꽂아서 벌겋게 불이 단 집게를 든다.
> "요놈(불에 달군 집게)으로 말 안 듣는 놈은 살을 푹푹 지지는 거야"
> 그는 광란한 표정으로 지껄여댔다. 이렇게 비서가 지시하고 떠난 뒤에 사무원들 간에도 이민대책으로 의론이 분분했다.[15]

폭력적 사건을 경험한 한 민족의 목소리를 봉쇄하고 거짓된 의미를 들씌우는 일본의 기만적인 역사수정주의의 정치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설 『갯들』은 사건의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소설이라는 문화 상품을 통한 문화적 차원의 응전이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의 망언에 우리는 한 민족이 겪은 사건의 경험을 인류가 함께 나누어 갖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15) 임영춘, 앞의 책, 1981, pp.11-12.

일이 아님을 절감한다. 일제 강점기의 폭력적인 사건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희생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고통스런 기억은 세계사적 차원에서는커녕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조차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

역사를 구성하는 담론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존재와 행위가 기억에 매개되어 사건을 체험하지 않은 타자들에게 인식되고 원체험자의 기억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됨으로써만 생산성을 가진다.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갖지 않은 개인의 기억은 세계의 외부로 밀려나 역사로부터 사라지게 마련이다.

새만금의 과거가 현재적 사건으로 영유되려면 사건의 기억이 타자에게 전이되어야 한다. 그것이 새만금의 외부에 살고 있는 타자들에게 새만금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고 나아가 그들을 새만금 공간을 찾는 방문객 또는 관광객으로 이끄는 길이며 종국에는 그들을 새만금 애호가로 만드는 길이다. 새만금의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오늘에 이르러 우리는 인류가 새만금으로 이르는 길, 즉 새만금의 정서적 회로를 만드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

조심할 것은 기억의 흔적을 망각의 폭력으로 지우려고 하는 일본의 정치학이 내셔널리즘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 터인데,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기억도 그것을 제대로 드러내려면 내셔널리즘의 미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교훈을 새기는 것이다. 새만금의 과거는 세계인의 공감과 이해의 토대 위에 보편성을 가진 범인류적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억의 기록은 기억의 과잉을 경계하며 절제미를 추구하는 예술과의 조화로운 만남을 달성했을 때 타자와 함께 꿈꾸는 미래지향적 기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즉 건조한 역사적 기록만으로는 그 조야성과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널리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갯들』이 소설적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얻

어내기 어렵지만 소설 형식을 차용한 기억의 기록은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일본 내셔널리즘의 폭력성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고발 서사: 『들판』

임영춘의 소설 『들판』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 민족이 겪은 수난사를 증언하는 고발문학이다. 앞서 출간된 『갯들』이 '기억'에 방점을 둔 '기억서사'라면 『들판』은 일제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이를 신고하는 데 비중을 둔 '고발서사'라 할 수 있다. 고발서사는 사회의 병폐를 들추어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증언의 구체성이 실감을 더한다. 증언, 즉 과거의 사건에 대한 세세한 묘사는 작품 속에 재현된 현실이 마치 그 사건의 실체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현실 효과(real effect)를 촉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갯들』과 『들판』의 차이는 목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갯들』의 목차는 '이민촌, 조수로 모여든 사람들, 향수의 방조제, 섬진강 젖줄, 지배자의 눈동자, 춘하추동, 풍속도, 반항의 계절, 상록학원, 순국의 그림자, 질식의 나날, 해방의 메아리' 등 주로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가시적인 현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들판』은 『갯들』과 같은 공간, 같은 사건을 다루되, 주로 비판적인 정서를 표면에 드러내고 있다. 『들판』의 목차는 (상권) '피 흘리는 들녘, 토지에의 향수, 갯펄로 모여든 사람들, 물둑의 사연, 섬진강이 흐르는 갯땅, 이민촌 농장, 일본인의 한', (하권) '노예 현장, 갯동네의 풍습, 반항의 계절, 목이 타는 상록수, 순국의 피는 흘러도, 조선 총독 갯들행, 해방과 겨레의 숙제' 등 정서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

『들판』은 '해방과 겨레의 숙제'로 표현된 바, 저자의 실천적 의

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현실 비평적 성격이 강한 글이다. 혹자는 이 소설을 일러 '사실적인 내용이 워낙 진실하므로 비소설적인 요소가 소설구성상의 미학을 압도한 생생하고도 절박한 기록문학'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작가는 『갯들』을 통해 새만금 방조제 이야기를 이미 세상에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갯들』로는 너무 미비하여 작가의 원한이 가라앉을 수 없었다고 한다. 작가는 민족의 상흔을 되살리기가 괴로웠지만, 그러나 지옥보다 더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인간 승리에 순수하고도 위대한 겨레의 긍지가 담겨 있다고 높이 평가했기에 다시금 기억을 되살려 『갯들』을 개칠하는 심정으로, 밤마다 붓을 들고 흥분에 떨며 원고지를 메워 나갔다고 토로한다.[16] 이러한 작가의 집요함은 역설적으로 한국인 수난사의 처절함을 강변하고도 남는다. 이전에 나온 『갯들』이 주로 김만경들에 초점을 맞춰 작가의 기억을 기록하는 데 치중했다면, 『들판』은 작가의 기억과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김만경들을 비롯하여 호남벌, 나아가서는 전 국토의 들판이 겪은 수난을 증언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기에 작가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까지도 거의 실제 인물들로 구성했다고 한다. 이것은 작가가 상정하는 고발 대상이 분명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서사는 왜인, 즉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육군 대좌 후꾸이가 야비할 정도의 온갖 구실로 한국의 농토를 탈취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어서 후꾸이와 함께 농산국장 이가리 박사는 한국의 개펄마저 자기들 뜻대로 개간해 나갔다. 그 바람에 한국의 농민들은 방조제를 쌓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

16) 임영춘, "작가의 말", 『들판』, 상, 1988, 대영사, pp.6-7.

키가 작은 지배인은 사무원을 모아놓고 반질반질한 이마를 돋보이며 긴 사설을 늘어놓았다.

"내가 전에 있었던 불이농장에서는 간평제를 실시했지만 여기서는 공동타작으로 노동자를 부려 그 능력을 측정하는 표본장을 만들겠다."

간평제란 벼가 익었을 때 일정한 평수의 벼를 베어서 나는 곡출을 환산하여 소작료를 매기는 제도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미곡증산을 위해 노동력을 재고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철저히 공동타작을 했다.[17]

노예인 점에서는 한국인이나 흑인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한국인이 겪은 참혹함은 흑인의 고난을 압도한다. 흑인은 노예에서 탈출하려다 채찍을 당하는 정도였지만 한국인은 혹독한 채찍을 받으면서도 행여 쫓겨날까 두려워했다는 점이 비극성을 더한다.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은 혹사와 굶주림 속에서도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면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일제의 지독한 횡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작품 전반에 걸쳐 소설의 각 장면 장면마다 작가는 증언의 치열성을 드러낸다. 노예 노동이라도 기꺼이 감수 할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은 오직 일할 기회만 찾았고 그 결과 오른손으로 모내기를 하다가도 피고름이 쏟아지면 왼손으로 바꿔서 지속해야 할 극한의 지경으로까지 내몰렸다.

밤에는 손이 곪으면서 아리기 시작한다. 밤내 잠을 못 자는 부인네들이 많다. 아침에는 그 곪은 손을 남편이 짜주고 다시 헝겊으로 매고 일터로 나와야 했다. 손이 아파 말랑한 흙이라도 꽂을 수가 없어 모가 둥둥 뜨기 마련이다.[18]

---

17) 임영춘, 『들판』, 하, 1988, 대영사, p.13.
18) 임영춘, 『들판』, 하, 앞의 책, p.25.

타작마당에서 바지 가랑이에 묻혀 온 벼알을 털어 식량을 감당하려는 장면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일제의 만행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효과를 낳는다. 한겨울의 방파제 구축에 동원된 농민들이 홑옷바람으로 돌짐을 나르면서 추위에 떠는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고된 일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고 아이들이 굶주림 끝에 개구리와 뱀이 썩은 도랑물을 먹고 죽어가는 극한 상황은 급기야 독자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일제치하 당시의 한국 농토는 오늘날의 우리가 생각하듯 고향에 대한 어린 시절의 향수 정도로 낙착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농토는 민족의 삶이었고 혼을 담은 생명의 근원지였다. 그러한 민족적 혼의 귀향지인 농토를 상기시키면서 저자는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저자 스스로가 왜 과거 부모 시대, 또는 조부모 시대의 기억에 사로 잡혀 있는가를 심사숙고하게 만든다.

저자가 밝힌 대로 실존 인물인 육군 대령 후꾸이(福井重記)는 군의 요직에 있었던 일본의 최우수 두뇌파였고 후일 조선 총독과 일본 수상을 역임한 고이소와 동기이기도 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가 군직을 버리고 조선의 간척지 개간 사업에 투신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새만금 사업과 연관 지어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일이다.

급기야 작가는 해방을 시작으로 하는 겨레의 숙제, 즉 일제청산 문제를 다시금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제기한다. 식민지라는 폭력적인 사건의 되새김은 겨레의 숙제를 수행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우리 민족이 경험한 일들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만 일제청산문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임영춘의 소설들은 그러한 당위적인 원칙을 새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다.

식민지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은 우리의 근현대 역사가 폭력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고발의 서사는 아직도 그 폭력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치유되지 못한 채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식민지적 사건의 기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억의 회귀는 근원적인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 당한 폭력적인 사건을 떠올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억에 매개된 폭력적인 사건은 그 당시 그 장소에서 몸과 마음으로 느꼈던 모든 감각과 함께 지금, 여기의 현재형으로 생생하게 일어난다.

기억의 시간과 현재적 삶의 시간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은 항상 현재형으로 회귀하는 사건이 된다. 기억은 시제를 파괴해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체험했던 폭력의 깊이를 결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가해자에게 과거는 지나간 시간일 뿐이지만 피해자에게 있어 과거는 과거로서 끝나지 않고 현재 속에서 수시로 그리고 불현듯 떠오르는 아픔이자 소리 없는 신음으로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

3)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 『대지의 유언』

『대지의 유언』은 서해안 간척지 갯들을 중심으로 김만경들과 호남벌이 겪은 일제시대의 민족 수난사를 기록한 임영춘의 세 번째 장편소설이다. 처음, 362쪽 분량이었던 『갯들』의 이야기는 『들판』에 이르러 상, 하로 분책되면서 594쪽으로 늘어났다.(상, 1987년, 304쪽), (하, 1988년, 290쪽) 또 다시 이를 증보한 『대지의 유언』

에서는 상, 중, 하 3권에 걸쳐 총 843쪽에 이르는 장편소설로 개작되었다.(상 270쪽, 중 281쪽, 하 292쪽) 13년에 걸쳐 지속된 작가의 열정은 간척지의 노예로 살았던 민초들의 끈질긴 생명력만큼이나 높이 평가할만하다.

20권 분량의 대하소설 집필을 꿈꾸었던 작가는 고향인 김제 광활면에서 살았던 유년시절의 기억으로부터 일제의 간척사업을 추적했다. 집필을 위한 자료 수집으로 철저한 고증이 더해지면서 징게맹게 너른들은 민족사적 고난의 공간이 되었다. 만경벌과 동진농장 일대의 간척지에 서린 한국인 농노들의 원한과 절규는 제국주의적 가치 속에 은폐되어버린 인간의 비참한 삶에 대한 세계사적 증언이기도 하다.

『대지의 유언』은 『갯들』, 『들판』에서 이미 다루었던 동진강 하류 간척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삼되, 이 두 작품과 달리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을 비롯하여 가족, 언어, 풍습, 종교 등 문화적인 활동을 추가하여 제국주의라는 시대, 제국주의의 가치관이 당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더 폭넓게 서술하고 있다. 이는 목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지의 유언』을 구성하고 있는 목차는 (상권) '피 흘리는 들녘, 구국의 횃불, 토지에의 향수, 유랑민의 숨결, 개펄로 모여든 사람들, 조수와 싸워서, 기나긴 방조제, (중권)' 섬진강이 흐르는 갯땅, 이민촌 농장, 후꾸이의 한, 노예 현장, 망해사의 손길, 갯동네의 풍속, 반항의 계절, (하권) '목이 타는 상록수, 전쟁의 회오리, 순국의 피는 흘러도, 조선총독 갯들행, 요시꼬의 방황, 해방의 메아리, 겨레의 머나먼 숙제' 등이다.

무엇보다도 식량이 절실했던 제국주의 일본은 식민지 한국의 토지를 모조리 점령하고도 모자라 간척지를 일구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식량은 방대한 제국의 건설을 뒷받침할 탐욕스런 진출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의 탐욕은

당대 조선인의 삶을 가공할 공포로 몰아넣었다. 영토 공간의 지배가 심화되면서 일제의 식량 획득에 대한 염원은 토지 수탈을 넘어 '처녀지' 만경벌의 간척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 점차 토지의 가치가 과대평가되면서 농지 개척은 제국주의 국가의 국책사업의 일환으로까지 승격된다.

그는 각 동네에 다니면서 그날 늦게까지 일한 사람들을 찾기에 골몰했다. 그 대신 후꾸이의 문제는 쑥 빼 버렸다.

"그날 마지막 일한 사람들을 사진 찍어서 총독부에 보내야 이 제방 보수비가 나온단 말이야."

그가 새까만 눈썹 밑에 동자를 날렵하게 깜빡거리며 마을을 돌아다녔다.

"총독부에 사진을 보내야 제방보수가 잘 된다니까."

살살 다니면서 불러내려했지만 역시 허사였다.

…(중략)…

저물어 가는 서해바다 멀리 금빛파도가 넘실거린다. 키가 헌칠하고 얼굴이 저녁 햇살에 빛나는 후꾸이는 채찍을 휘두르며 달리는 말 위에서 춤을 춘다. 번질번질한 장화로 말배를 구르며 괴이한 웃음을 뱉는다. 그는 십 킬로의 제방을 이렇게 누비고 있었다.

"이제는 꿈을 실현할 때가 왔다."

소리 소리를 공중에 뱉으며 가슴을 훨훨 바다에 턴다. 삽시에 말은 제방을 달려 동쪽 끝에 와서 코를 불며 앞발을 쳐든다. 다시 채찍을 휘두르며 고삐를 돌려 속력을 놓는다. 말은 네 굽을 돌아 제방 위를 달려간다. 날아가는 듯 비호같은 동작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폭의 떠있는 화면이었다.

…(중략)…

그는 혼자 외치고 있었다. "고이소(후일 육군대장, 조선총독과 일본 내각총리대신) 고이소야, 이제부터 꿈이 실현될 이 자연 앞에 내가 섰다.

그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흥분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실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시퍼런 장도를 휘두르며 지휘했던 때와 같은 기세였다. 그의 동공은 충혈된 채 무섭게 뜨고 있었다. 군대를

> 다스리던 육군대좌의 늠름한 모습이 지금 달리는대로 바다에 투영되었다.[19]

후꾸이는 이러한 제국주의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본인의 국가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자발적인 의식전환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다. 간척지 개간사업을 총지휘했던 일본 육군 대령 출신의 후꾸이(福井重記)는 제국주의적 가치의 화신으로 등장하고 있다. 제국주의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상황이었기에 일제의 공격적 성격 내지 야만적 행위는 은폐되어버린다. 팽창을 향한 목표지향적인 제국주의의 운영은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상상에 매료되어 식민지민의 비참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낭만적 거리감각을 낳았다.

『대지의 유언』은 제국주의적 가치의 숭배가 어떻게 가공할만한 원주민들의 고통을 유발시켰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임영춘이 아니었다면 일제의 간척사업은 제국의 위용을 드높인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록되었을지 모른다. 하마터면 서해안 간척사업은 인간의 의지야말로 위대함의 증거라거나 그저 깜짝 놀랄 만큼 거창한 일본인의 선행 업적쯤으로 찬양되고 말았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들은 바다와 함께 민족의 고통을 함께 묻어버리는 우를 범했을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의 식량 생산력에 대한 우려와 토지의 공간적 크기에 대한 열망은 식민지 민족에 대한 부당한 처사의 증식을 낳았다. 제국주의의 오만은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길러온 에너지를 동원하면서 식민지에 대한 무자비한 지배와 이익 획득을 교환하는 데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제국주의로 말미암아 세계는 더 호전적이고 훨씬 더 배타적이며 급기야 경색되기에 이르렀다. 인류가 소망하는 낙관적인 인간의 삶이 실종되어버린 것이다.

---

19) 임영춘, 『대지의 유언』, 중, 1994, 세림, pp.130-132.

임영춘이 그려낸 것처럼 1899년 5월 1일, 군산항이 개항되면서부터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번영의 역사는 역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 수탈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생존을 향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서해바다의 통로가 열리자 너도 나도 앞다투어 들어 온 일본 낭인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국토가 점차 왜인 천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식민지 민족은 소름끼치는 지독한 침범과 저항불능의 공포를 경험했다. 근대적 기술문명을 앞세운 제국주의의 지배는 인간의 존엄성을 모두 폐기처분하고 문명의 가치를 박탈하는 막강한 부정의 힘이었다. 간척사업은 자연의 창조적인 힘을 오히려 사악한 것으로 만들고 인간 사이의 평등과 박애의 가치를 지워 버렸다. 제국주의의 이면에서는 삶을 긍정할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내기 어렵게 된 것이다.

세월이 흘러 지난 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객관적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지금 우리는 임영춘이 그려낸 바, 제국주의의 희생자가 토로하는 고통스런 절규, 조선인의 참담한 삶의 방식 등을 통해 선조에 대한 후손으로서의 책무, 국가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의무감 등을 깊이 사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의 간척사업을 열정적으로 돌아본 임영춘의 소설들은 새만금의 경제적 번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하다.

4. 맺음말

새만금은 전라북도 서해안 일대는 물론 도청 소재지인 전주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지리 공간이자 역사 공간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새만금은 거대한 개발사업의 대상으로만 비춰지고 있다. 아직까지 그 땅에 깃든 사람들의 삶의 흔적, 즉 역사적 자취는 그

다지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어떤 장소를 그 이전과는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한다고 했을 때, 그 땅에 깃든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이야기가 뒷받침 되었을 때 비로소 새롭게 개발되는 땅도 생명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20]

문학 작품 중 특히 소설은 어떤 공간을 상상하거나 인식하게 만든다. 대개 이러한 인식을 '심상지리(心想地理, imaginative geography)'라 일컫는다. 심상지리는 인문지리나 자연지리와 달리 주체가 인식하고 상상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말한다. 한마디로 관념 속에서 규정된 지리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상지리는 거짓이라거나 조작된 공간 개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새만금 서사는 새만금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사람들의 기억에 새겨지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40~1918』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의 역사학자 스티븐 컨(Stephen Kern)의 말처럼, 공간에 대한 인식은 관점, 생각, 감정 등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21] 새롭게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하는 시점에서, 새만금은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심상을 창안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새만금 개발은 우선 우리의 역사 속에 저장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만금의 역사적, 사회적 의미망을 탐색하는 작업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새만금은 민족의 숭고한

---

20) 김선경, "『아리랑』을 통해 새만금을 보다", 장미영 외, 『새만금 스토리텔링』, 글누림, 2009, pp.153-186.

21) 스티븐 컨, 박성관 역,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1880~1918), 휴머니스트, 2006.

여정을 바탕에 깐 생성적인 이미지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임영춘, 『갯들』, 현암사, 1981.
임영춘, 『대지의 유언』, 상, 중, 하, 세림, 1994.
임영춘, 『들판』 상, 대영사, 1987.
임영춘, 『들판』 하, 대영사, 1988.

2. 논문

변화영, 「기억의 형상화와 지방사: 임영춘의 『갯들』에 나타난 김만경평야」,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3집, 2008, pp.395-420.
변화영, 「소설과 민족지의 경계넘기: 탁류의 경우」,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37-1』, 2004, 73-103.
임영천, 「한국의 생태소설 연구 - 조헌용의 한 중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비평문학회, 『비평문학』, 제18호, 2004, 391-412.
장일구, 「도시의 서사적 공간형상: 한국현대소설에 투영된 몇 가지 국면」,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35, 2007, 71-88.
한순미, 「지명과 문학적 상상력」, 현대문학이론학회,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3집, 2008, 465-492.
함한희, 「사회적 고통을 보는 문화적 시각 - 새만금지역의 경우」,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2』, 2002, 262-283.
함한희, 「새만금 간척개발사업과 어민문화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37-1, 2004, 151-182.
함한희 · 강경표, 「어민, 환경운동가, 그리고 정부의 바다인식 -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11』, 2007, 247-284.

3. 단행본

군산시사편찬위원회, 『군산시사』, 1991.
군산시, 『금강의 물메아리』, 군산시, 1983.
김성환, 「새만금,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대안을 찾아서」, 『개벽과 상생의 문화지대 새만금 문화권』, 정보와사람, 2006.
김수환, 「유리로트만 기호학에 있어서 '공간'의 문제」, 『기호학연구』, 한국기호학회, 2002.
김열규, 「topophilia : 토포스를 위한 새로운 토폴로지와 시학을 위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나병철, 『전환기의 근대문학』, 두레시대, 1995.
류보선, 「탈마법화된 바다, 혹은 바다의 재탄생」, 『파도는 잠들지 않는다』 작품집 해설, 창비, 2003.
부안군지편찬위원회, 『부안군지』, 1991
새만금 전시관 홍보자료
스티븐 컨 저, 박성관 역,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1880~1918), 휴머니스트, 2006.
오창은, 「'졸(卒)'의 언어로 풀어낸 새만금 갯벌 이야기」, 『비평의 모험』, 실천문학사, 2005.
오카 마리 저, 김병구 역, 『기억 서사』, 소명출판, 2004.
유홍준 외, 한국문화유산답사회 편, 『답사여행의 길잡이 1, 전북』, 돌베개, 1997.
이대규, 「『탁류』의 도시공간연구」,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이-푸 투안 저, 구동회,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1999.
장미영 외, 『새만금 스토리텔링』, 글누림, 2009.
전북문학지도간행위원회, 「땅이 곧 하늘이다, 김제」, 『땅은 바다를 안고』, 신아출판사, 2004.
조정래, 『아리랑』, 해냄출판사, 2008.
조헌용, 『파도는 잠들지 않는다』, 창비, 2003.
채만식, 『탁류』, 한국소설문학대계, 14권, 두산동아, 1999.

4. 인터넷 자료

군산사랑(http://www.gunsansi.co.kr/special/special_1.html), 2003.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ong.go.kr).
daum백과(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부안군청 홈페이지(http://www.buan.go.kr).
사회갈등연구소, 「부안사태 4년, 국책 사업 갈등이 남긴 상처, 누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7.
(www.socon.or.kr)
새만금, 새만금간척사업,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
연합뉴스, 2017.6.27.(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7).

(**투고일**: 2017. 6. 30 **심사완료일**: 2017. 8. 15 **게재확정일**: 2017. 8. 16)

장미영
소속: 전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성지산2길9-9.
전화번호: 010-8648-4164
전자우편: hadajang@hanmail.net

[Abstract]

People's Historical Trauma and an Anti-narrative

- Centering on Lim Yeong Chun's Novel

Jang, Mi-Yeong

Writing of memory is practicing a justifiable will which somebody's experience of an incident has to be shared with the whole community at the same period. It is also the political activity deeply intervening the real issue which nobody cannot handle despite of its desperate necessity.

From *Sea side field* in 1981 to *the wild field* in 1988 and *land's will* in 1994, A novelist Lim Yeong Chun, by adjusting and adjusting, keeps expressing Korean people's scar when their fields and the sandbank were taken and infringed by the Japanese empire.

As the Japanese rule toward the land has been deepening, their desire for food has been extended from simple occupation of land to reclamation work on Mangyeong sea bank. As the value of land was getting over-evaluated, reclamation work became the government project. Hucui is a typical character who voluntarily changed his sense to the sense of mission for the nation based on the value of imperialism. He used to be the colonel of Japanese army and became in charge of reclamation project representing the imperial value. It causes to hide the Japanese ruler's aggressive attitudes.

As time flows, now we can see objectively the previous century, the era of imperialism, and also deeply consider the people's duty for the nation, victims' painful outcries and weird way of life those days.

Key words: literary-geography, humanistic value, historical trauma, writing of memory, people's scar, the value of imperialism, the historic evidence, the history of exploitation, the people's duty, imagined geographies